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승효상



중세에 지은 이탈리아 시에나 시청사 내부에는 알브르치오 로렌체티가 그린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나타내는 프레스코 벽화가 있다. 그림 속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에는 많은 건물들이 뻗어 들어차 있고, 밝은 분위기의 시민들은 상거래에 몰두하고 있다.

반면에 어둡게 그려진 성벽에는 농부들이 죄다 머리를 숙이고 경작에 열중하는 동안, 잘 포장된 도로 위를 성에서 나온 귀족들이 사냥 도구를 실은 말을 타고 하인들을 데리고 가고 있다.

동서를 막론하고 옛날에도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빈부와 신분의 차이였던 것이다. 사실 도시가 발생하고 나서야 농촌이라는 공동체가 생겼다. 농촌은 도시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공급처였으니, 늘 도시에 의해 그 성격이 정해졌고 도시가 요구하면 사라지기까지 했다. 이 특별한 신분의 도시 거주민을 상내에 산다고 하여 부르주아라고 불렀다. 성벽은 농민에게는 완고한 상징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 시민혁명으로 정신의 자유를 얻고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물질의 자유를 취득하게 된 19세기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포화상태를 견디다 못한 성벽은 마침내 허물어지고 도시는 이

제 기회의 땅이 되면서 보랏빛 미래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개방되어 확장일로에 놓이고 된다. 그렇게 커진 도시를 메트로폴리스(Metropolis)라고 부른다.

현대에서도 주변에 위성도시를 여럿 둔 대도시를 의미하는 말로, 그 배경은 확장과 성장에 있다. 백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이

성찰적 도시, 메타폴리스

(Metapolis)

메트로폴리스는 오늘날 무려 450개나 되며, 이는 천만 명 인구의 메갈로폴리스를 낳아 현재 세계에 20여 도시에 이른다. 이 초대형 도시는 도시 상호 간의 연합을 촉진하여 에큐메노폴리스라는 이름으로 지구 전체의 도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폭발적이다.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인구의 75%가 도시민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미래를 예견하는 이들은 이를 두고 죄다 비판적이었다. 1927년에 나온 미래도시에 관한 공상영화 '메트로폴리스'에서는 도시는 지배자와 노동자 계급으로만 나뉜 갈등의 집단으로 그려졌고, 1982년의 영화 '블레이드런너'가 그린

2019년의 로스앤젤러스는 산성비에 젖은 음울한 풍경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 이상기후, 석유 자원의 고갈, 원자력의 공포 등 온갖 지표와 예측도 불안하다. 과연 우리 인류는 지속할 수 있을까?

미국의 도시학자 리차드 세넬트는 민주주의를 목표로 하는 도시의 성격을 이렇게 정의했다. "다원적 민주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려 한 시노이키모스(synoikimos), 즉 종족간, 경제적 이교단 혹은 정치적 견해간의 차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앙집중화된 권력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

로의 차별성이 발전의 주체이다. 이 민주주의적 비전은 거대하고 집중적인 건물들이 표현하는 상징보다는, 뒤범벅된 공동체 속에 여러 언어가 적층된 건축을 선호한다. 궁극적으로 다원적 민주주의의 현상은, 전체로서의 도시를 표현하는 이미지를 철저히 부수려뜨리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그가 그려던 도시는, 단일 중심의 땅을 용도별로 나누며 기능의 최대화를 목표로 통제적 체계를 가지고, 기념비적 건물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지배하는 메트로폴리스와는 대척점에 서 있었다.

그런데 좋은 조짐이 보인다. 서울과 부

산, 광주와 대구 등에서 도시재개발이 아니라 원주민을 정착시키는 도시재생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는 과거를 지워 스펙타클한 광경 만들기에 몰두해온 지난날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성찰이었다.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이라는 종속적 관계의 공동체가 아닌, 이들의 기능이 결합한 공동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위 도시(Urban)와 농촌(Rural)을 합친 러반(Ruban)라이프, 농촌에서 5일을 살고 주말 이틀을 도시에서 머물며 즐기는 삶이다. 물론 IT산업이 가져다 준 스마트환경 때문에 발생한 풍경이다.

도시재생이든 러반라이프든 이들 공동체는 네트워크로 묶여진다. 여기서는 땅을 구역별, 용도별, 기능별로 나누지도 않을뿐더러 뒤범벅이 더 다중적이고 이질적으로 이뤄져 있다. 이런 도시가 한계에 봉착한 메트로폴리스를 뛰어넘는 도시, "메타폴리스(Metapolis)"라고 프랑스의 도시학자 프랑수아 아셰가 제안하였다. 나는 이를, 지난 우리의 뜻난 도시개발을 반성하는 도시라고 풀이하며 "성찰적 도시"라고 번역하였다.

그렇다. 이제 성장과 팽창은 과거의 유산이며, 개발과 재개발이 아니라 재생과 치유, 그리고 절제를 통한 지속적 삶과 우리의 감성과 지혜를 나누는 연대적 삶이 새 시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게 "성찰적 도시"가 그리는 풍경이다.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건축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로 칼럼



문병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엄마들의 가장 큰 관심사를 꼽자면 단연 아이의 교육 문제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일을 하는 엄마이건 아닌건 내 아이를 다른 또래들에 비해 어떻게 하면 뒤처지지 않게 잘 키울까하는 것이 엄마들 사이에서는 화두다.

아이가 겨우 웅얼일 때는 두어 살 무렵만 돼도 이웃집 아이가 배운다는 교재는 무엇인지, 요즘 유명한 학원이나 학습법은 어떤 것인지 하는 최신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교육열만큼은 당분간 사그라지기 쉽지 않을 듯 보인다.

교육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아이의

평생 건강 좌우하는 예방접종

건강이다. 환경호르몬이며 각종 유해한 환경에 노출된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요즘 엄마들은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맞춰 아이의 건강을 책임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먼저 예방접종부터 제대로 챙기고 있는지 묻고 있다.

예방접종은 현대 의학이 만들어낸 최고의 업적이다. 불과 100년 전에 30~40세에 못미치던 평균 수명이 이제 평균 80세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예방접종 덕분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방접종의 원리는 그 질환을 직접 잡지 않으면서 감염에 대해 면역력을 만들어 주는 것은 백신을 주사해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예방접종을 통해 영유아

시절에 면역력을 획득하는 것은 아이의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

예방접종 시에는 특정 기간에 유행한다거나 질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요즘과 같은 때는 독감 예방접종과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우선 순위다. 먼저, 독감 예방접종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그해 유행이 예상되는 3가지 독감 바이러스를 주정해 매년 새롭게 제조되기 때문에 매년 맞아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종인플루엔자 균주도 포함돼 이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 보통 늦어도 11월까지의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폐렴구균 예방접종이다. 폐렴구균 백신은 말 그대로 폐렴구균에 의해서 걸리는 병을 예방하는 접종으로 뇌수막염, 패혈증, 중이염과 폐렴 등을 예방할 수 있다. 패혈증의 85%, 뇌수막염의 50%, 세균성 폐렴의 66%, 세균성 중이염

의 40%가 폐렴구균에 의해서 생긴다.

현재 국내에는 십여 가지 활동성이 높은 균을 예방하기 위한 13가, 10가 두 가지 백신이 나와있다. 백신 앞에 붙는 숫자는 예방 가능한 폐렴구균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10가는 10가지, 13가는 13가지의 폐렴구균에 의한 질환을 예방해 준다. 최근 유행하는 19A 혈청형은 항생제 내성이 강해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좋지 않아 특히 조심해야 한다. 19A 균은 13가 백신을 통해서만 예방이 가능하다.

폐렴구균 백신은 생후 2개월에 시작해 4개월~6개월, 이렇게 3회의 기본 접종 이후 12~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으로, 총 4회 접종해야 한다. 4회까지 접종을 완료해야 안전한 수준의 면역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4회까지 잘 챙겨야 한다. 기존에 7가 백신으로 접종 완료한 만 5세 미만 소아의 경우, 13가 백신을 1회 보강 접종하면 6가지 추가된 혈청형에 대한 예방 효과도 갖게 된다.

소중한 내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꼼꼼하게 챙겨주는 것이야말로 '평생면역'이라는 값진 선물을 해 주는 것이다.

<광주 허니아동병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시설

광주시 공무원 잇단 비리 그 끝은 어디인가

광주시가 비리 북마진다. 공무원 3명이 함께번에 직위해제 되는 시역사 상 소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공직비리가 도를 넘어섰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15일 총인처리시설 임철로 비와 관련, 녹취록 파문의 당사자인 도시철도건설본부 반도 서기관과 공금을 횡령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과 A씨(7급), 농업기술센터 B씨(6급) 등 3명을 직위해제 했다.

반씨는 시공사 선정 후 업체 관계자를 만나 사전 담합과 금품을 요구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A씨는 공금 1억1000만 원을 횡령하고 4000여만 원을 유용했다가 적발됐다. B씨도 지난 2007년부터 쫓겨 잔디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7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리 공무원이 7급에서 4급까지 직급을 가리지 않고, 업체 관계자한테 금품을 요구하거나 거액을 횡령, 유용하는 등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

다. 광주시가 이 정도로 구린내가 진동하고, 썩어 있었다니 말문이 막힌다. 시민의 공복(公僕)으로서 혈세를 마치 제호주머니 돈인 양 갈취를 했다는 게 있을 법한 일인가.

광주시는 그동안 공직비리가 터질 때마다 "청렴"을 입버릇처럼 떠들어왔다. 그러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지난 2년 동안 각종 비위로 징계를 당한 시산하 공무원이 46명에 달하고,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전국 16개 시·도 중 5위로 처져 전년도 1위에서 4단계 하락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광주시는 대오각성을 해야 한다. 강운대 시장이 16일 이번 사태와 관련, 유감을 표명하고 금품 수수 공무원은 곧바로 해임 또는 파면하는 원아우 퇴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때늦은 조처라 아닐 수 없다. 감시장은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눈과 귀를 활짝 열어봐 할 것이다.

영산강 오염원 관리 이렇게 허술해서야

영산강 살리기 사업 구간내 생활오수 관 파열로 오·폐수가 4일간 무단 방류돼 영산강 수질을 크게 오염시켰다. 수질 복원과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사업 취지가 무색하게 된 것이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나주 송월동 인근 영산강변을 따라 매설된 하수관로가 공사과정에서 파열돼 하루 9000t의 오수가 영산강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한다. 이 사고는 G3건설이 영산강 둔치에 매설된 차집관로의 맨홀을 높이는 공사를 하면서 기존 차집관로를 막아 수압이 상승, 콘크리트 이음새가 손상돼 발생했다. 15일 밤 복구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누출 지점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사이 사흘간이나 영산강에 폐수가 그대로 유입된 것이다.

문제는 사업 주체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영산강사업이 종료되기 전 노후관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사업을 마무리했다. 나주시의 요청으로 맨홀 보강공사를 하다 사고를 냈다는 점이

다. 해당 하수관로는 지난 1994년 설치된 것으로 17년 이상 노후돼 교체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그럼에도 사업 과정에서 강을 횡단하는 오수관로만 새 관으로 교체했고, 강둔치의 노후관로는 방치했다. 그러다 영산강 담수로 인한 수위 상승시 오수 유입 우려가 있다는 나주시의 지적에 따라 둔치 맨홀만 보강작업을 시행하다 사고를 냈다.

이런 안전사고가 반복될 경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 다시 '오염의 강'이 될 수밖에 없다. 따듯한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져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영산강변 노후관 교체도 서둘러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영산강변 업소들에 대한 오·폐수 무단 방류 차단, 영산강 치안·생태에 대한 정비사업 등 사후 관리대책 추진도 시급하다. 그래야만 맑은 물 공급이라는 영산강 살리기의 본 취지도 제대로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無等鼓

2011년 11월 11일, '탈리니엄 빼빼로 데이'로 이름 붙여진 이날 초콜릿 매출이 발런타인데이가 화이트데이를 앞질렀다고 한다. 빼빼로데이는 지난 1994년 부산의 여중생들이 숫자 1이 네 번 겹치면서 11월 11일에 친구끼리 우정을 전하면서 '키 크고 날씬하게 예뻐지자'라는 의미로 빼빼로를 교환하는 데서 유래했다.

제조사인 롯데제과에서 1996년 지방의 신문기사를 통해 빼빼로데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이날을 대대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OO테이라는 이름으로 젊은층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만 해도 수십개에 달하지만 빼

빼로데이는 발런타인데이의 초콜릿 판매량을 넘어설 정도로 우리 문화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데이마케팅은 기업의 브랜드가 숫자와 관련된 브랜드 네임이 고유의 특성을 가진 경우에 고객에게 제품 브랜드 네임을 쉽게 전달하고, 촉진하기 위해 브랜드와 연관된 숫자에 해당

데이 마케팅



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매력을 넘어서 정도로 우리 문화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데이마케팅은 기업의 브랜드가 숫자와 관련된 브랜드 네임이 고유의 특성을 가진 경우에 고객에게 제품 브랜드 네임을 쉽게 전달하고, 촉진하기 위해 브랜드와 연관된 숫자에 해당

/최재호 경제부처장 lion@kwangju.co.kr

기고

세금은 공정사회의 초석이다



이현민

최근 여기저기서 경기가 어렵다는 불만소리가 아우성처럼 터져나옵니다.

더구나 대기업들을 포함한 제조업체가 빈약한 광주·전남·북 지역의 경제 사정은 타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특히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유유를 비롯한 공산품과 밥상 물가가 오르는데다 지역 중견 건설업체의 잇단 부도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의 체감온도는 이미 겨울에 접어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성실 납세의무가 강조되는 것은 실업수당, 근로장려금 등 국가가 어려운 이웃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마련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서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세금이라는 무게감이 더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민 삶을 도와줄 사회비용 재원인 세금 마련이 한 층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다는 이유로 국세를 납부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납세의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 재산암투 등에 몰입을 갖는 불성실한 사업자가 가끔은 있습니다.

반면, 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해 미안해하고, 어떻게든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하려고 최선을 방법을 모색하는 성실한 사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성실

한 사업자를 위하여 납부기한 연장, 체납액 징수유예, 압류유예 등으로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사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파악하고 세정 지원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운전 외에는 별다른 기술이 없어 화물자동차 1대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체납자의 이야기입니다.

배우자는 암으로 투병하다 사망하였고 자녀 2명을 부양하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세금을 제때에 못 낸 사업자는 지병까지 있어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형편으로 보험금으로 겨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보험금까지 압류가 들어와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같은 대출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해 화물운수업을

난다고해도 2배 안팎, 정말 많은 차이를 인정해 줬고 3배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무려 대여섯 배씩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또한, 다른것도 아닌, 준 의료시설에 가까운 산후조리원이 지역마다, 시설마다 그렇게 큰 차이를 보여도 그냥 인정해주는 제도적 문제도 크다고 생각한다.

갓 태어난 아기는 병에 약해 신생아 감염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청결과 좋은 시설이 필수적인 하지만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비싼 건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

▲이순애·광주 시 북구 출효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터무니없이 비싼 산후조리원 규제해야

최근에 동생이 아기를 낳아서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추של았다. 처음에는 아이를 낳은 산부인과와 가까운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집에서 너무 멀어 이를 만에 집 근처 산후조리원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런데 집 근처 몇 군데 시설이 괜찮은 곳을 알아보니 산후조리원마다 가격차이가 터무니없이 많이 났다. 처음 산부인과 근처에 들어갔을 때는 2주간 비용이 160만 원이었

는데 이웃처럼 알아보니 가장 비싼 곳은 2주일 동안 무려 740만 원이나 했다.

물론 산후조리원도 개인사업자이고, 거기에 어떤 시설이 얼마나 들어가는가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날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아기를 낳은 산모가 2주일 동안 머무는 곳이라면 거기에 필수적인 시설과 장비, 음식류 등이 넉넉하게 공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가격도 높은 차이가

Table with publication info: Kwangju Ilbo, The Kwangju Ilbo,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etc.